

# IBKS Spot Comment

에너지/소재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 [에너지/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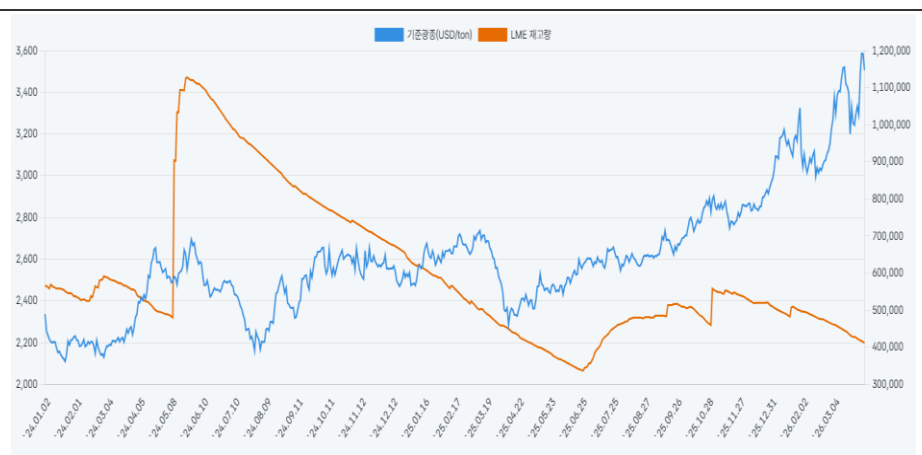
### 원유 다음은 알루미늄, 호르무즈 위기의 비철금속 확산

#### 미국-이스라엘 연합군, 이란 최대 알루미늄 업체 공습

금일 미국-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IRALCO를 공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격은 단독 이벤트가 아니다. 지난 3월 28일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걸프 지역의 대표 제련소인 EGA(연산 160만톤)와 Alba(연산 160만톤)를 드론과 미사일로 타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란 내 핵심 알루미늄 생산시설까지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걸프 지역은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약 9%를 담당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역외 수출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생산 시설까지 직접 피해를 입으면서 공급 교란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LME 알루미늄 가격은 전쟁 개시 이후 약 10% 상승하며 톤당 3,50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국은 1차 알루미늄 제련 능력이 사실상 없는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국내 알루미늄 가공업체인 삼아알미늄, 조일알미늄 등은 LME 연동 판가 구조를 갖추고 있어, 원재료 재고 보유분에 대한 재고평가이익이 단기 실적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LME 알루미늄 가격이 톤당 3,800달러를 돌파했던 국면에서 관련주가 급등했던 전례도 있다. 반면 2차전지용 알루미늄박, 자동차 경량화 소재, 음료캔 등 알루미늄 수요 산업에는 원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번 사태는 호르무즈 위기의 파급 효과가 원유와 LNG를 넘어 비철금속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영향의 본질은 알루미늄 제련소가 한번 타격을 받으면 즉시 가동 차질이 발생하고, 이후 재가동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이라는 점에 있다.

그림 1. 알루미늄 가격 및 LME 재고 추이



자료: KOMIS, IBK투자증권

www.ibks.com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길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